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

#대구 동구 #자산취득비 지원

‘친한 친구’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

아띠는 ‘친한 친구’라는 뜻으로 마을주민 모두가 친한 친구가 되자는 의미입니다. 2008년 10월에 개관한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는 회원들의 후원금과 마을에 사는 엄마, 아빠들의 순수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띠는 시작부터 남달랐습니다.

지금처럼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이 활성화 되지 않았던 그 옛날, 우리 마을에도 아이들 손잡고 10분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을의 엄마, 아빠들이 모이기 시작했지요. 도서관 터를 잡기 위한 보증금 마련부터 모든 도서관 관련 일들에 마을의 엄마, 아빠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하고 발로 뛰어주었습니다.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도서관 아띠는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주민들 스스로 십시일반 힘을 모아 만들어진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마을의 사랑방이자 책으로 소통하는 문화공간입니다.

긴급지원119와 함께한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 도서관 아띠의 2017년 은 어떠했나요?



아띠는 마을 주민들의 열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후원 행사를 열어 첫 시작 보증금과 월세를 마련하고 마을 주민들의 돼지 저금통 후원금으로 책을 사거나 도서관 운영비에 보탬했습니다. 여기에 책이나 물품을 기증하겠다는 분이 계시면 작은 리어카를 끌고 어디든 마다않고 달려갔던 엄마들의 열정, 도서관 전체 도배부터 바닥 공사 등 푹푹뚫 힘을 실어 준 아빠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모여 아띠 도서관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지원119는 그러한 아띠에게 꼭 맞는 맞춤형 지원이었지요. 아띠는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도서관의 가전제품 교체가 시급해진 때가 됐습니다. 12년 이상 되는 낡은 제품들이 언제 오작동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혹은 수리비가 제품비보다 더 드는 아찔한 상황에 직면했답니다.

긴급지원119를 만나 아띠의 많은 것들이 새로워졌습니다. 여름만 되면 덜덜 거리는 소음으로 주민들의 독서에 방해꾼이 되었던 에어컨, 본체와 연결된 호스관이 파손되어 검정 테이프로 징징 잡아 사용하던 청소기, 윈도우 XP를 탑재하고 속도가 느려 사서들의 애간장을 녹이던 컴퓨터 등 낡고 노후화된 가전으로 채워져 있던 공간을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나니 리모델링한 것 마냥 신선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정기 방문 단체도 늘었고, 이용하는 회원과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졌지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특강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 빔 프로젝트 등이 필요할 때면 마을의 다른 단체에서 빌려오곤 했는데 이번 기회에 노트북과 빔 프로젝트도 구입할 수 있어서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 도서관 아띠의 2018년 은 어떠한가요?



작은도서관 활동가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 다면?

아띠를 찾아주시는 분들께서는 한마디로 아띠 인물이 환해졌다고 하십니다. 낡은 가전제품이 초라하게 놓여있던 공간이 새 제품으로 탈바꿈 되면서 더욱 쾌적해진 환경에 다들 만족해하십니다. 도서 대출반납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서들도 그 전보다 훨씬 빨라진 컴퓨터 속도로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좋아하십니다. 앞으로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특강도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도서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더 기대됩니다.

2017년은 보람과 힘들이가 공존했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아띠의 역사상 가장 많은 프로그램과 특강이 진행되었던 해였던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운영진들의 각기 다른 생각을 조율하고, 프로그램 관계자와도 계속해서 논의해야하고, 또 참가자를 모으고, 프로그램 마무리 후에는 각종 결과보고서 제출 등 업무상으로 힘든 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사람들이 흐뭇해하고 만족해할 때면 뿌듯함과 함께 힘든 순간도 한꺼번에 날아가기도 했지요. 힘들지만 이런 맛에 도서관 일을 계속 하게 되나 봅니다.

새로운 관장님과 운영진으로 꾸려지는 2018년은 개인적으로도 기대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총회가 2월에 예정되어 있고, 아직까지 새로운 운영진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아 좀 어수선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상, 하반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더 알찬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입니다. 도서관 홍보를 강화하고, 마을의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보다 노력할 것입니다. 개관 10년을 맞는 아띠도서관의 2018년은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아서 한껏 기대되는 한 해입니다.

순간순간 힘들지만 또 다른 행복과 희망으로 우리는 오늘도 도서관 문을 열게 되지요. 도서관에 들어서서 미소 짓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고 그 미소에 계속 중독되어 봅니다. 2018년 새해에도 모두들 파이팅하시고,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